

# 국내 최대 콘텐츠전시회 '광주 에이스페어' 5일 열린다

### 김대중컨벤션센터서...AI, 5G, 가상·증강현실 등 283개사 참여 사업 상담회·학술행사·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부대행사도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20 광주 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가 온·오프라인 복합 전시회로 5일부터 8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 한-아세안센터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

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대표 브랜드 전시회다. 2006년부터 매년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사업 상담, 해외 수출과 투자 협력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뉴 콘텐츠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홀로그램과 방송,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본 행사로 열리는 전시회는 주제관인 'G. AI Life in 202x'를 비롯한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영상 등 문화콘텐츠, 인공지능 관련 283개사 335개 부스가 운영된다. 또 세계 고객과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상담회 및 학술행사, 삽화(일러스트레이션) 박람회, 아토토이 특별전, 인터넷동영상 서비스(OTT) 토론회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아트 토이는 기존 장난감에 아티스트 또는 디자이너의 그림을 입히거나, 디

자인에 일부 변형을 입힌 장난감 등이다. 전시회의 주제관인 'G. AI Life in 202x'는 인공지능 생활관·작업실, 인공지능 사진 촬영 행사 등 광주가 만들어 가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다가올 미래를 엿볼 수 있다. '2020 광주 국제 삽화 박람회'와 '2020 아토토이 특별전'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아트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대중과 소통하는 아트 콘텐츠 축제를 통해 지역 아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

련해 작품 홍보 및 판매 효과를 극대화한다. 다양한 현장 체험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은 아트 콘텐츠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야외활동 제약으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에 맞춰 올해 진행될 포럼은 '글로벌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산업 및 시장 전망'을 주제로 정부관계자 및 국내외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관계사, 학계, 콘텐츠 제작사, 언론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북구 '공직자 안심식당 동행 챌린지' 캠페인 2일 광주시 북구의 한 안심(동네)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서 문인(가운데) 북구청장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 '공직자 안심식당 동행 챌린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북구는 11월 한 달 동안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개선 정책을 위해 본청 전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공직자 안심(동네)식당 동행 챌린지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광주시·스위스, 문화·경제 등 협력 방안 논의

### 이용섭 시장, 리누스 대사 접견 광주비엔날레에 전시장 설치 추진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대사를 접견하고 광주와 스위스 간의 문화·산업·방역 등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와 스위스의 관계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 대사는 "시대적 담론과 현대미술을 접목시키며 20년 이상 지속된 광주비엔날레를 인상 깊게 보고 있다"며 "내년에 열릴 예정인 광주비엔날레에 스위스와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스위스 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을 2019년부터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스위스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인공지능클러스터단지 조성 등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세계 유례없는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자동차공장인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에 대비해 2045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형 AI-그린뉴딜 정책 등 녹색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의료, 정밀기술, 녹색산업 등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와 경제, 기술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의회 오늘부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처리

전남도의회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전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된다.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시장연설과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부적격 농가' 퇴출

### 내년부터 도비 지원 제한 부정인증 방지 현장 관리 강화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부정인증으로 처벌받은 농가의 친환경농업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취소 면적이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5년간 배제된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상습 취소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 1회만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5년간 즉시 지원을 제외하기로 해 사실상 친환경농업에서 퇴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출된다. 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시 농약 혼용 및 관행농기계 사용 등으로 단지의 행정처분 원인을 제공한 방제업자와 불량 농자재 공급 업체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했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들 책임의식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인증 방지를 위한 생산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농약살포 의심 필지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통해야 점검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시·군 공무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외의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수 농가의 부정인증으로 대다수 관철하게 친환경농업을 실천중인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신 안 된다"며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명량대첩 전승' 기념 약무호남 제례 봉행

### 명량대첩 역사적 가치 재조명

전남도가 명량대첩 전승일(음력 1597년 9월 16일)을 기념해 지난 1일 해남 우수영 충무사와 진도 정유재란 순절묘역에서 약무호남 제례를 봉행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명량대첩축제를 취소했지만 구국의 상징인 명량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명량대첩 전승일인 음력 9월 16일(양력 11월 1일)에 맞춰 제례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자 지정, 행사장 내 사전방역, 참석자 명부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으며, 참가인원도 최소화했다. 그동안 '약무호남제례'는 매년 명량대첩축제에 맞춰 해남우수영관광지와 진도녹진관광지 일원에

서 개최됐으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성공개최 및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한편 풍전등화 속 나라를 지키고 순국한 성웅 이순신 장군과 호국 영령을 기리고자 축제 당일 봉행해왔다. 명량대첩축제는 세계 해전사상 가장 빛나는 명량대첩 대전승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남도와 해남·진도군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광동 전남도 관광과장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선조들의 희생과 넋을 기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명량대첩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